'선교적 리더십'에 대한 현대적 담론

Contemporary Discourse of 'Missional Leadership'

하 성 만

고신대 학부대학 조교수

목 차

1. 들어가는 글 | 345
2. 'Missional'의 태동과 신학적 배경 | 346
3. 선교적 리더십 | 351
   3.1. 선교적 신학 | 351
   3.2. '선교적 리더십'과 교육의 관련성 | 354
   3.3. '선교적 리더십'과 '성경신학'과의 상관성 | 357
   3.4. '선교적 리더십'과 '문화명령'과의 상관성 | 361
4. 나가는 글 | 365

요약

‘선교적 리더십’에 대한 현대적 담론

선교적 리더십에 대한 담론은 ‘선교적 삶’을 위한 성찰이며, ‘선교적 교육’을 위한 기초적 담론이다. 선교적 리더십이 교육과 관련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21세기의 교회 회중들이 선교적 리더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는 목회자와 평신도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서, 선교적 리더십에 대한 개념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선교적 리더십의 두 요소는 세례와 제자도이다. 이 두 요소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족된다. 세례라고 하는 특별하고도 공적인 관계 형성의 체결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언약이 확증되며, 제자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씀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선교적 리더십에 대한 담론이 그 주제로서, ‘하나님의 선교,’ ‘선교적,’ ‘선교적 교회,’ ‘선교적 리더십,’ ‘성경적 세계관,’ ‘문화명령,’ ‘하나님의 형상’ 등을 다루고 있다. 다양한 소주제들을 다룸으로써 선교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완성하려 하였다. 21세기에 진보와 보수와 개혁진영 모두가 받아들이는 '선교적'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고, '선교적 삶'에 대한 성찰과 함께 고신 신학의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다루었다.

Contemporary Discourse of 'Missional Leadership'

주요어

선교적, 선교적 리더십, 선교적 삶, 성경적 세계관, 문화명령, 하나님의 형상

Abstract

Contemporary Discourse of 'Missional Leadership'

Prof. Dr. Seung Maan Hah

The discourse of missional leadership is an introspection of 'missional life,' and is a basic discussion for 'missional education.' The 21st century church requires missional leaders due to the lack of missional education within missional leadership. Understanding missional leadership as a concept is important to ministers and congregations as it is very well applicable in various aspects. Understanding missional leadership as a concept is important to ministers and congregations as it is very well applicable in various aspects.

Particularly, missional leadership consists of two elements: one for baptism, the other for discipleship. Baptism confirms the covenantal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is people through the unique and public ritual ceremony. Discipleship includes the baptism in its process. Both are all satisfied with the covenantal relationship to the triune God. Because missional leadership is the topic of this article, the writer will explore unearthing God's mission, the concept of 'missional,' 'missional church,' 'missional leadership,' 'biblical worldview,' 'cultural mandate,' and so forth. Through the lens of small illustrations, the writer

attempts to draw a big picture of missional leadership. In the contemporary society of the 21st century, we should understand the missional concept of the liberal and of the conservative. Even the reformed circle has accepted and participated in the concept of missional approach, and seeks proper direction for the prospective education of Kosin theology with a self-reflective attitude to the ‘missional life.’Abstract

Keywords | Missional, missional leadership, missional life, biblical worldview, cultural mandate

1. 들어가는 글

'선교적 리더십'(missional leadership)에 대한 담론은 21세기 선교학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 중 하나이며, 20세기 말에 사용하기 시작한 '선교적'(missional)이라는 용어로부터 확장된 담론이다. '선교적'이라는 개념은 1980년대 영국의 인도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비긴에 의해서 시작되어 1990년대에는 북미주에서 <복음과 우리문화 네트워크>라는 단체로 인해 활성화되었다. 이 '선교적'에 대한 담론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칼빈주의자들에 의하여 더욱 그 개념이 강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세기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리더십이라는 주제도 선교적이라는 용어와 결합하면서 '선교적 리더십'(missional leadership)이라는 용어로 21세기 선교학의 중심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선교적'이라는 용어와 그 개념의 확장은 1950년대 유럽대륙에서부터 일기 시작한 '하나님의 선교' 개념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처음 소개한 신학자는 칼 바르트였지만, 선교학과 관련하여 이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칼 하르텐슈타인이었다.[1] 물론 이 개념은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창립과 발전에 따라 몇 번에 걸친 신학적 변곡점이 있어 보이지만, 하르텐슈타인의 관점은 오늘날 선교학 분야에서 '선교적'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여전히 중요한 관점으로 계승되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와 '선교적'이라는 두 용어의 개념은 독립적으로 발생하였지만, '선교적'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이미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수용 아래 발전되어 왔다. 이들

1) 칼 바르트는 그의 계시신학에서 선교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심을 강조하였다; "Revelation theology for missions."; Jurgen Schuster, "Karl Hartenstein: Mission with Focus on the End" *Mission Studies* 19 (1) (2002), 56; Gerold Schwarz. "The legacy of Karl Hartenstei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8 (3) (1984), 126.

두 용어를 구별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문화관'에 대한 이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선교적'이라는 새로운 용어의 사용과 개념은 세상에 만연하게 퍼진 반기독교적 문화에 대하여 기독교 사회의 정당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선교적'(missional)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선교적 리더십'의 신학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현대 사회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신학교육의 원리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이는 실천신학의 미래 방향을 선교학적 관점에서 제시함으로써, 고신 교회의 신학적 지평을 확장 시키며, 한국사회에서의 성경적 세계관과 문화관의 적용을 가속화 하도록 기여할 것이다.

2. 'Missional'의 태동과 신학적 배경

스튜어트(T. Stwart)는 'Missional'의 개념을 일곱 가지로 분류하며 그 개념이 20년마다 변해 왔다는 것을 말한다: 1) '보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듀보스(DuBose)[2]의 생각, 2) 교회의 사역, 정책, 목적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들, 3) 교회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거나 사회정의를 위하여 취하는 행동들, 4) 하나님의 선교나 그 목적에 관련된 일들, 5) 주위 공동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에 초청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위들, 6) 교회가 지역 문화에 의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 7) 여섯째와 유사하지만, 서구사회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초문화적(cross-cultural) 환경 아래에서 반기독교적 문화에 대항하여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들이다. 스튜어트는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서 일곱 번째 개념이 뉴비긴이 접근한

2) F. M. DuBose, *God Who Sends: A Fresh Quest for Biblical Mission* (Broadman Press: Nashville, TN, 1983), 53.

문화적 관점에서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정리하고 있다.[3] 먼저 스튜어트가 말하는 뉴비긴의 'missional' 개념을 탐색하기 위해서 레슬리 뉴비긴의 행적을 살펴봄으로써 그 개념을 알아보고자 한다.

'선교적(missional)'이라고 번역된 'missional' 용어의 태동은 스코틀랜드장로교의 선교사로 안수받고, 인도로 파송된 레슬리 뉴비긴(J. E. Lesslie Newbigin, 1909~1998)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뉴비긴은 영국장로교(the Presbyterian Church in England)에서 성장하고 퀘이커 교도들의 기독교 사립 기숙학교를 졸업은 하였지만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었다. 1928년 그가 런던의 케임브리지대학교의 퀸즈대학(Queen's College)에 진학하던 해에 상급생의 모범적인 삶에 도전을 받아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는 학생신앙운동(the Student Christian Movement: SCM)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연합운동에 참여하였으며, 1933년에 캠브리지대학교의 웨스트민스터대학[4]에서 목회학을 전공하였다.

1936년 스코틀랜드장로교의 에딘버러 노회(the Presbytery of Edinburgh)에서 선교사로 가기 위하여 목사안수를 받고, 인도의 남쪽 지방인 마드라스주(Madras State)에 아내와 함께 파송되었다. 그는 교회는 반드시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굳게 믿었으며, 선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믿었다. 스코틀랜드장로교회의 파송을 받았지만, 인도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교지에 새로운 형태의 초교파 연합교회를 설립하고 급기야 인도로 파송된 지 11년 만에 자신을 파송한 교단을 탈퇴했다. 이유는 오직 선교지에서의 초교파교회의 설립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개혁교회에 뿌리를 둔 회중교인들과 장로교인들을 연합하였던 그는, 1947년에 다른 교파인 감리교도들과 성공회 교인들과도 연합하여 초교파 연합교회인 남인도교회(The Church of South India: CSI)를 설립하여 10년 동안 그 교회의 초대 주교(bishop)로 취임하였다.[5]

---

3) https://www.dictionaryofchristianese.com/missional

4) 이 웨스트민스터대학은 영국 런던에 있던 케임브리지대학교에 소재하였으며, 스코틀랜드장로교 성향의 장로교 신학대학이었다.

뉴비긴의 교회연합 활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교리적 내용을 실천하려는 강한 열망으로, 성경과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강조하는 스코틀랜드장로교의 전통으로부터 유래한 것이었다.[6]

뉴비긴이 개혁주의 전통의 신학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스타우트(Andrew C. Stout)에 의해서 잘 표현되고 있다. 스타우트는 뉴비긴을 장로교감독으로서 연합활동을 펼쳤던 운동가로 평가한다. 그 누구보다도 뉴비긴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제25장의 '교회의 연합과 가시성과 불가시성'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지키려 하였던 인물로 평가한다.[7] 교회의 연합과 일치 운동에 대한 뉴비긴의 신념은 그가 1947년에 세웠던 남인도연합교회를 설립한 직후에 출판한, 『교회의 재결합』(1948)에서 잘 나타나 있다: "교회는 거룩함과 죄성을 동시에 가진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근원적 문제이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들의 결합체이다."[8] 뉴비긴이 밝힌 교회의 본질적 두 요소는, 첫째는 말씀의 복음선포와 성례 집행을 통한 교회의 연합이다. 둘째는 교회의 보편성이다. 그는 보편적 교회야말로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해야 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믿었다.[9] 이것은 스타우트가 뉴비긴의 교회론을 개혁교회의 전통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을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10]

'선교적'이라는 개념은 뉴비긴의 은퇴 이후에 일어났다. 1974년 은퇴 후 영국에 돌아온 뉴비긴은 이미 반기독교화된 영국의 문화에 큰 충격을 받는다.

---

5) Andrew C. Stout, "A Presbyterian Bishop: Lesslie Newbigin and the Reformed Ecumenism," *Pro Ecclesia* 26 (3) Sum (2017): 280-281; Theodore Otto Wedel, "The reunion of the church"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38 no 149 (Jan 1949): 100. 1947년 9월 27일 토요일에 레슬리 뉴비긴은 그 교회의 주교로 취임하였다.

6) Lesslie Newbigin, *Unfinished Agenda: An Autobiography* (London and Grand Rapids: Eerdmans, 1985), 230.

7) Andrew C. Stout, 281-284.

8) Lesslie Newbigin, *The Reunion of The Church* (London: Student Christian Movement Press, 1948), 100.

9) Ibid.

10) Andrew C. Stout, 284.

평생토록 교회를 세웠고,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복음전파와 정당한 성례 집행을 중심으로 교회연합을 위하여 쉼 없이 일해 왔었으나, 이제는 그가 이전의 모든 사역들보다도 더 힘을 내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그는 1998년 임종 때까지 24년 동안,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의 확장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그는 강의와 강연 등을 통하여 교육에 힘을 쏟았다. 미국에서도 프린스톤신학교에서 강연 활동과 교환교수 사역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다. 그의 강연 후 북미주에서 결성된 <복음과 우리문화 네트워크(GOCN: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라는 단체가 결성이 되었는데, 이 단체는 포스트모던시대에서의 문화적 대응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과 신념들을 실천에 옮기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풀러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캐나다의 침례교 성직자인 락스버그(Roxburgh)는 그의 책, 'Missional'에서 GOCN에 대한 성격을 창립회원들의 이름들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 단체의 창립회원들은 조지 한스버그(George Hunsberge), 크레그 밴겔더(Craig VanGelder), 윌버트 쉥크(Wilbert Shenk) 등이었다. 한스버그(Hunsberge)는 RCA (Reformed Church in America) 교단과 관련이 있으며 화란계 개혁신앙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웨스턴신학교(Western Theological Seminary)의 선교학 명예교수로 있다. 밴겔더(VanGelder)는 개혁신앙 성향의 네덜란드계 미국인이며 칼빈신학교의 국내 선교학 교수였으며, 현재 미네소타주에 있는 루터신학교(Luther Seminary, Minnesota)의 선교학 명예교수이다. 그리고 쉥크(Shenk)는 메노나이트(Mennonite) 성향의 풀러신학교 선교학 교수이다. 이들은 주로 뉴비긴의 사역에 대한 스터디 그룹의 성격으로 모임을 출발하였으며, '복음과 교회와 문화를 연결하는 삼중 대화' 즉, trialogue (a three-way conversation)를 단체의 사역 목표로 삼았다.[11)]

---

11) Roxburgh, *Missional: Joining God in the Neighbourhood* (Baker Books: Grand Rapids, MI, 2011), 51.

이처럼 미국의 GOCN은 개혁주의 신학 성향의 다양한 교파의 학자들에 의해서 1990년대 초에 형성되었다[12] 이들은 포스트모던 사회에 접어든 상황에서 복음의 의미와 복음과 문화와의 만남(encounter)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선교(God's mission) 관점에서 사회와 문화를 분석하는 일을 하였다.[13] 이는 1983년 영연방 교회협의회(the British Council of Churches)가 발간한 뉴비긴의 'The Other Side of 1984 Questions for the Churches'의 내용으로서, 미국에서도 1980년대 말에 같은 내용의 토론이 지속 되었다.[14] 뉴비긴은 서구사회가 기독교 사회(a Christendom society)로 있어 왔지만, 이제는 명백한 탈 기독교인(post-Christianian) 사회이며, 반기독교적이 되었음을 지적하였다.[15] 이러한 그의 분석과 주장들은 미국에서도 동일한 위기감 속에서 호응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한 증거는 구더(Darrell L. Guder)[16]의 글에서 잘 나타나 있다.[17] 구더는 서구사회의 탈 복음화에 대한 뉴비긴의 경고를 선교학적 합의(missiological consensus)로 표현하며, 그 내용적 핵심은 'missio Dei'의 뜻을

---

12) 영국에서의 GOCN은 1992년에 시작되었으며, 북미주(미국과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도 GOCN이 시작되었다. 다음을 참고하라. "Introducing the Network" on http://www.gospel-culture.org.uk/intro.htm

13) "About the Network,"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 (2008), http://www.gocn.org/network/about

14) D. L. Guder (ed.),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Grand Rapids, MI, 1998), 3. 'missional'이라는 용어는 이 책에서 최초 표기되었다. 아래의 책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다: Craig Van Gelder and Dwight J Zscheile,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Mapping Trends and Shaping the Conversation* (Baker Academic: Grand Rapids, MI, 2011), chap. 1 – 3 for a summary of the background, development, and conceptualization of the missional church conversation.

15) Ibid.

16) Darrell L. Guder is Henry Winters Luce Professor of Missional and Ecumenical Theology at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Available from: http://www.gocn.org/network/team (Accessed on 22nd April, 2015).

17) D. L. Guder, 'Missional Theology for a Missionary Church,' *Journal for preachers* 22(1), (1998): 3-7.

가진 'mission of God'으로 규정하고 있다.[18] 즉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 대한 적용으로서, '보내며 가는 선교'의 개념으로부터 '현재 있는 장소에서의 선교'의 필요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종교적, 문화적, 철학적, 사상적으로 다문화적 포스트모던 사회이기에, 선교의 개념도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변천한 것이다.

이러한 구더의 생각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칼빈주의적 관점의 신학과도 무관하지 않다. 구더는 그의 책, *The Incarnation and the Church's Witness* (2005)를 통하여, 성육신적 선교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성육신적인 증인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것으로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19]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사건이 인간구원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었음을 의미한다.

3. 선교적 리더십

3.1. 선교적 신학

그렇다면 '선교적 신학'은 무엇일까? 그 뿌리는 어디이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를 찾기 위해서 구더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복음과 우리문화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창설하고 기초를 놓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구더(Guder)는 바르트(K. Barth)와 보쉬(D. Bosch)를 인용하면서, '선교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교회는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18) Ibid.
19) D. L. Guder, *The Incarnation and the Church's Witness* (Wipf and Stock: 2005,) 11.

그 자체이며, 선교는 교회의 소명이며 본질이다. 그것은 뚜렷한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보냄 받은 사람들'이다. 예배, 선포,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굳건히 한다." 구더는 '교회는 바로 나 자신'임을 강조하며, 내가 곧 '하나님의 보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20] 그는 또한 신학의 올바른 재설정을 통하여 교회들의 선교적 갱신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21]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는 선교적 교회로서 그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정의를 받아들인다."[22]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중요성과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강조하였던 칼 바르트로부터 그 개념이 기원하였다. 하지만 그 용어를 최초 사용하여 선교학에 적용한 사람은 칼 하르텐슈타인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를 최초로 사용하였던 하르텐슈타인의 배경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르텐슈타인(K. Hartenstein, 1894~1952)은 경건주의가 발생한 독일 남부 지역에서 출생하고 양육 받았으며, 튀빙겐대학교의 신학부를 나오게 되었는데, 바르트의 신학을 따르지 않고 경건주의 신학을 따랐던 칼 하임(Karl Heim, 1874~1954)의 관점을 따랐다. 경건주의 신학이란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종말론적 언약신학을 강조하였던 회중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신학을 가리킨다. 하르텐슈타인은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두 강림 사이에 하나님의 행위가 개입하는 것을 선교라고 보았는데, 이것은 당시 독일의 스트라스부르 출신의 루터파 개혁주의 신약학자였던 오스카 쿨만(Oscar Cullmann, 1902~1999)의 신학적 관점과 관련이 있다. 천국이 이미 도래하였으나, 아직

---

20) Guder (ed.),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4-5.
21) Ibid., 8.
22) Ibid.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의 관점은 경건주의 신학뿐만 아니라, 오늘날 개혁신학자들 모두에게 수용되어 깊은 족적을 남겼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는 하르텐슈타인이 1952년 독일 빌링겐에서 열렸던 국제선교사대회(IMC)가 끝나고 작성한 보고서에 최초 기술되었다. 이때는 중국의 공산혁명이 완수되어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축출되던 시기였다. 교회가 선교하던 것으로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던 시기는 공산권에서 축출되는 시대적 배경과도 잘 들어맞았다. 하지만 불행히도 하르텐슈타인은 그 대회가 끝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58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와 개념은,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하여 발생한 중국에서의 선교사 축출, 동구권의 공산화, 남미의 사회종교적 문제 등과 관련하여 WCC에서 주로 사용되었는데, 보수진영에서도 1974년에 사회정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더니, 2000년대에는『하나님의 선교』(The Mission of God) (2006)라는 이름으로 가장 두꺼운 책을 집필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이 책을 집필한 크리스토퍼 라이트(C. J. H. Wright)는 죤 스토트의 후계자로서 영국 복음주의 죤 스토트 계열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오늘날 21세기에 와서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보수진영에서도 이미 일반화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진보이든 보수이든 그들의 신학 뿌리에는 경건주의 신학인 언약적이며 종말론적 재림사상이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는 후커다이크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고 선언하였을 때도, 독일의 선교학자 조지 비스덤(G. F. Vicedom, 1903~1974)이 그리스도와 말씀 중심으로서의 '하나님의 선교'를 주장할 때도, 그 어느 때도 교회를 배제하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요하네스 후커다이크(J. C. Hoekendijk, 1912~1975)가 교회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선교'만을 강조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다소 지나친 평가이다. 후커다이크가 강조하였던 것은 '교회의

선교'와 비교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외쳤던 하르텐슈타인과 마찬가지로,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를 넓히던 시대적 배경 가운데 교회도 자신들의 왕국을 넓히려 하였던 선교방법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던 것이었을 뿐 교회를 과소평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후커다이크와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비스덤 역시 결코 교회를 배제하지 않았으며, 함께 연합활동을 하였던 인도 선교사 레슬리 뉴비긴도 역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사역자였기 때문이다.

3.2. '선교적 리더십'과 교육의 관련성

리더십에 대한 용어와 개념은 19세기에 등장하여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20세기 말에 등장한 '선교적' 개념은 이미 널리 사용되어 오던 리더십이라는 단어와 결합하여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형태의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선교적 리더십'이라는 용어이다. 이 '선교적 리더십'은 종종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와 함께 사용되곤 한다. 지난 세기에 이 두 주제어는 각각 독립적으로 연구되어온 주제어였으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선교적 교회'를 다루는 담론에는 '선교적 리더십'이 같이 등장하고 있다.

현대문화와 관련한 선교적 담론의 주요 논자인 밴겔더(Craig VanGelder)[23]는 선교적 리더십을 신학교육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24] '과연 신학교들이 21세기 회중을 위한 선교적 리더들을 준비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의 질문은

23) 크레그 밴겔더(Craig VanGelder)는 미국선교학회, 복음과 우리문화 네트워크, 종교과학학회, 도시문제협의회 등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루터신학교(Luther Seminary)의 회중선교학 명예교수이다. 리폼드신학교(M.S.), 남서침례신학교(Southwestern Baptist Seminary, Ph.D.) 졸업, 텍사스주립대학교에서 도시문제행정학을 전공(Ph.D.)하였으며, 기독리폼드교회(CRC) 소속의 목사이기도 하다. 특히 그는 <복음과 우리문화 네트워크>의 창설자들 중 하나이다.

24) C. VanGelder, *The Missional Church & Leadership Formation: Helping Congregations Develop Leadership Capacity* (William B. Eerdmans: Grand Rapids, MI, 2009), 11-44.

오늘날의 신학교육이 적절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비판이다.[25] 그가 지적하는 실패 요인은, '현대의 신학교육이 슐라이마허의 존재론적[26] 접근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실제 사용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27] 밴겔더는 신학교육을 하는 교육 기관이 선교적(missional)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21세기 회중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선교적 리더들을 길러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선교적 리더십과 관련한 교육목표와 과정은 제자도와 관련이 있다. 제자도를 통해서 자신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이다. 제자도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면, 세례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촉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시애틀대학교의 교육학 교수인 샤론 칼라한(S. H. Callahan)은 선교적 리더들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세례 역할의 중요성을 논하였다. 그녀는, 세례란 삼위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상징이라고 말한다."[28] 또한, 칼라한은 세례가 '하나님께 대한 관계로부터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모든 은사가 세례로부터 나오며, 그 근원에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한다.[29] 그녀는 바울이 말하였던,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3절)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빌립보

---

25) Ibid., 35.

26) Ibid. 밴겔더가 비판하고 있는 슐라이마허의 존재론적 신학교육이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같은 존재론적 접근의 신학교육은 목회의 실제에서는 크게 작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비판을 말한다.

27) Ibid.

28) S. H. Callahan, 'Forming lay missional leaders for congregations and the world' in Craig Van Gelder (ed.), *The Missional Church: Helping Congregations Develop Leadership Capacity* (William B. Eerdmans: Grand Rapids, MI, 2009), 126.

29) Ibid., 131.

교인들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대하여 자신을 헌신할 것을 믿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세례가 선교적 리더십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칼라한은 '선교적 리더십'이야말로 기독교의 교리적 이론과 실생활의 통합을 위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네 가지의 실제적인 전략을 소개하는데 참여, 영적 실습, 공동체, 평생 제자도 등을 꼽고 있다.[30]

미네소타 주에 소재한 루터신학교의 '아동 및 청장년사역학' 교수로 있는 엘톤(T. M. Elton) 역시 칼라한과 마찬가지로, 선교적 리더십에 있어서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세례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둘 다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기독교의 맹세임을 상기시킨다. 즉,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늘에 대하여는 사는 것이다. 이것은 세례가 평생에 걸쳐 단 한 번의 부르심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으며, 세례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31]

칼라한과 엘톤의 주장과 같이, 선교적 리더십은 세례로부터 출발한다. 세례는 단순히 선교적 리더십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사들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락스버그와 로마누크(Alan J. Roxburgh and Fred Romanuk) (2006)는 선교적 리더십에 관한 여섯 가지의 주제들을 열거하고 있다: 1) 당신은 어떻게 선교적 리더십을 할 것인가? 2) 대부분의 모델들이 예전의 패러다임을 재사용함으로써 교회교육의 연속적인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3) 대부분의 경우에 선교적 리더십은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불연속적이다.

---

30) Ibid., 137.

31) T. M. Elton, 'Characteristics of Congregations that empower missional leadership: A Lutheran voice', in Craig Van Gelder (ed.), *The Missional Church & Leadership Formation: Helping Congregations Develop Leadership Capacity* (William B. Eerdmans: Grand Rapids, MI, 2009), 199.

4) 선교적 리더십은 회중적이다. 5) 선교적 리더들은 새로운 잠재력과 틀이 필요하다. 6) 교회 회중은 세상의 기관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기관이다.[32] 이들이 열거한 주제들 중 선교적 리더십과 관련하여 교회교육에서의 비효율성에 대한 담론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교회교육과 기독교교육이 아직도 교리를 암송, 암기하는 수준에서만 머물고 있다면, 21세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3.3. '선교적 리더십'과 '성경신학'과의 상관성

성경적 신학과 성경적 세계관의 두 관점에서 '선교적' 개념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두 관점을 통한 보다 깊은 이해는 성경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시야를 넓혀주며, '선교적'의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먼저 성경신학적 관점과 관련지어 선교적 리더십을 살펴보자.

사이먼 디그라프(S. G. DeGraaf, 1889~1955)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본문의 내용인 '창조에서 가나안 정복'으로부터 그 내용의 예를 들면서 구속사적 관점의 조명을 강조한다.[33]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자기계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34] 유사한 주장들이 성경 학자들 사이에 있어 왔다. 윌리엄 벤게메렌(W. A. VanGemeren, 1948~) (1988)은 성경은 창조로부터 새예루살렘까지에 대한 하나의 구원 이야기로 보았다. 월터 카이저(W. C. Kaiser

---

32) A. J. Roxburgh & F. Romanuk, *The Missionary Leader: Equipping Your Church to Reach A Changing World* (Jossey-Bass: San Francisco, CA, 2006), 3-13.

33) S. G. DeGraaf, (trs.) Stephen Hwang, Promise and deliverance I (Pyongdan Munhwasa: Seoul, 2011), 17. 디그라프는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구속사적 관점의 성경 해석에 공헌도가 높다.

34) Ibid.

Jr., 1933) (2008)는 성경 이해를 위해서는 '성경신학'의 관점이 요구되며, 성경을 읽을 때,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큰 그림으로써의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카이저는 언약 관점에서 보여지는 성경의 통일성을 주장하였다.[35] 이들은 모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신학의 관점에서 이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보스는, 성경신학이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과정을 다루는 일종의 주해신학(exegetical theology)의 가지이며, 그것의 방향과 완전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과 같이 큰 그림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36] 고신대학교에서 은퇴한 황창기 교수가 편집한 『특별계시의 역사』(1987)는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게할더스 보스(Geerhardus Vos, 1862~1949)를 인용하여, '계시의 유기적 통합성'을 설명하였다.[37] 중요한 것은 계시의 과정에서 드러난 역사의 진행이다...계시는 모든 세대들의 역사의 과정에서 드러난다...계시는 구속의 해석이다.[38]라고 설명한다. 제임스 해밀턴(J. M. Hamilton Jr.)은 "저자들의 가정들과 전제들, 관련성들, 정체성들, 진실과 상징 등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포함하여 성경 저자들을 해석하는 관점"이라고 하였다.[39] 그레이엄 골즈워디(G. Goldworthy)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신학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이 계시의 중요성과 그 통합된 진전(united progression)을 강조하는 전체인 것과

---

35) W. C. Jr. Kaiser, *The Promise-plan of God: a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2nd ed.) (Zondervan: Grand Rapids, MI, 2008), 25. 카이저가 표기한 '빨간 실줄'이라는 것은 아마도 전체를 관통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한 듯싶다.

36) G. Vos, *Bib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s* (Wm. B. Eerdmans Publishing: Grand Rapids, MI, 1948), 5.

37) 황창기,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기독교문서선교회: 서울, 1987), 21.

38) 황창기, 38, 40; G. Vos, *Bib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s* (Wm. B. Eerdmans: Grand Rapids, MI, 1948)에서 인용.

39) J. M. Jr. Hamilton, *What is Biblical Theology: a Guide to the Bible's Story, Symbolism, and Patterns* (Crossway: Wheaton, IL, 2014), 15.

같이, 하나님의 계시 짜임새(matrix)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40]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 창조에서 시작하여 새창조로 완성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중심이며, 신구약 사이에 있는 연결고리라는 점이다.

이상에서 보여주듯이, 성경신학적 관점은 성경이 인간구원을 위한 단순한 교리서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킨다. 구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사실도 함께 보여준다. 역사는 특정한 목표를 향하여 단계적이고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은 구원과 역사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구속사(the redemptive history)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구속사의 큰 그림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세계관의 변화들을 드러내 보인다.[41] 성경은 계시의 진행에 있어서 네 역사단계인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을 보여준다.[42] 동일하게 기독교 세계관에서도 네 역사단계를 말한다.[43] 그 변화들을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 있는 그분의 활동 결과들은 매 기간이 균등하지는 않다. 헬름(P. Helm)은 창조, 타락, 구속과 회복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 사이에 있는 관계를 위하여 언약을 통해 자신의 경륜을 드러내신다고 설명하고 있다.[44] 월터스(Wolters)는 창조-타락-구속 개념을 기독교 세계관의 틀에서 설명하고 있다. 고힌(Goheen)도 세계관과 선교와의 관계에 대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계관이란 집에 있는 상하수도배관의 기능을 한다. 파이프

---

40) G. Goldsworthy, *Christ-centered Biblical Theology: Hermeneutical Foundations and Principles* (InterVarsity Press: Downers Grove, IL, 2012), 27.

41) C. J. H. Wright, *The Mission of God: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InterVarsity Press: Downers Grove, IL, 2006), 265.

42) 학자들에 따라서는 세 단계인 창조, 타락, 구속으로 보는 이들도 있으며, 다섯 단계인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43) P. Helm, *The Providence of God: Contours of Christian Theology* (InterVarsity Press: owners Grove, IL, 1994), 94.

44) P. Helm, 102-104.

들은 마치 집에서 마실 물이나 씻을 물을 가져다주는 것과 같다. 세상 속에서 선교할 때, 복음은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만나도록 해 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45] 즉, 성경 이야기의 큰 흐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주제가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역사단계들로 구성된 세계관 인식을 통하여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46]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From Creation to New Creation* (1994)을 저술한 앤더슨(B. W. Anderson, 1916~2007)은 하나님의 새 창조(new creation)로서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이셨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새로운 커뮤니티로 창조되었음을 말하고 있다.[47] 즉,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신학의 중심에서 구속사를 이어주는 역할이심을 보여주고 있다. 바울과 같은 신약 기록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48]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신학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창조로부터 새로운 창조로 가는 구속의 전체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마스터플랜에 의하여 역사단계들을 거치게 된다. 또한, 이것은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인식하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선교적' 개념이 '선교'나 '전도'와 유사어가 아니라고 하였던 크리스토퍼 라이트 (Christopher Wright)의 말을

---

45) A. M. Wolters & M. W. Goheen,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Wm. B. Eerdmans: Grand Rapids, MI, 2005), 142.

46) Ibid., 127-132.

47) B. W. Anderson, *From Creation to New Creation: Old Testament Perspectives* (Augsburg Fortress: Minneapolis, MN, 1994), 243.

48) Ibid., 244; 골1:15-17.

인용하였던 사무엘 로건으로부터 확인되고 있다.[49] 그 네 가지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말씀과 행위를 통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부르심 2) 선교에 대한 부르심의 영역 3) 세상을 위한 기독교인들의 긍휼 4) 인류공동체의 변혁 등이다. 교회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outward) 나아가야 하며, 세상에 대하여 긍휼을 가져야 할 것을 함의한다. 또한,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변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섬겨나가는 '선교적'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세계관과 선교적 개념이 상호 불가분리하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4. '선교적 리더십'과 '문화명령'과의 상관성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리더십이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한 '다스림'의 리더십이 세상을 향한 리더십으로 나타나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리더십이다. 인간에게 그 권한과 책임이 위임되어 창조질서를 유지하게 하신 것이다.[50] 따라서 인간에게 부여된 '다스림'이라고 하는 세상을 향한 리더십은 창조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스리기 위하여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인간은 땅에 충만해져야 하며, 그 충만을 이루기 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야 하는 명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문화명령의 마지막 명령어인 '다스리라'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듯이 공의와 평화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려야 함을 요구한다. 이는 삼위

---

49) S. T. Logan (ed.), *Reformed Means Missional: following Jesus into World* (New Growth Press: Greensboro, NC, 2003), 6.

50) S. M Hah, Y. J. Kim & E. S. Yoon, *Looking world by Christianity* (Handle Press: Seoul, 2015), 73.

하나님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발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인간의 역할이 창조질서의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축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51]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셨던 문화명령(the cultural mandate)을 부여받은 대상은 첫 사람, 아담과 하와였으며, 그들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다.[52] 하지만 인류의 첫 가정을 조직한 아담과 하와는 문화명령의 수행에 있어서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죄를 저질렀다(창3:5).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가 원래 부여받은 그 문화명령에 대한 수행 권한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길밖에는 없다. 즉,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만이 문화명령에 대한 수행 권한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창1:26-28). 이러한 문화명령에 대한 이해는 문화명령의 수임자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나님의 형상(tselem)을 따라 우리의 모양(demuth)대로'라는 구절에 대한 해석은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53] 초대교부였던 오리겐(Origen Adamantine, 185~254)이나 이레니우스(Irenaeus of Lyons, 125-202)는 '하나님이 지닌 성품 혹은 특성'으로 이해하였다. 이 견해는 교부들에게서 지지를 받아왔다. 하지만, 16세기의 루터와 칼빈 때에 와서 이러한 해석에는 변화가 나타난다. 즉 하나님의 성품이나 특성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물론, 칼빈은 '형상'이나 '모양'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나마 존재론적 특성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이는 골로새서 3장 10절을 근거로, '참지식, 의, 거룩' 등을 예로

---

51) S. M. Hah, 'Biblical Leadership Understanding in Reformed Worldview,' *Faith & Scholarship* vol. 20 (2015:147).

52) S. M Hah, Y. J. Kim & E. S. Yoon, *Looking world by Christianity* (Handle Press, Seoul, 2015), 73.

53) Hah, S. M., 2015, 'Biblical leadership understanding in Reformed worldview,' *Faith & Scholarship,* vol. 20 (2015:137-158)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Studies: Seoul, 2015), 143.

든 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는 파괴되었지만,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부분적으로 참지식, 의, 거룩 등의 성품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54]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개혁주의 학자들은 19세기 중엽 이후, 좀 더 관계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미국의 칼빈신학교에서 교수하였던 후크마(Anthony A. Hoekema, 1913~1988)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표기는 동일한 의미의 반복적 표기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한다.[55] 네덜란드의 자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벌카우어(G. C. Berkouwer, 1903~1996)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이들 두 단어는 차이가 없으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56] 이러한 생각은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에 활동하였으며 네덜란드의 자유대학교를 설립하였던 카이퍼(A. Kuyper, 1837~1920)나 바빙크(H. Bavink, 1854~1921)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그들 모두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57] '형상과 모양'의 두 단어는 동일한 의미로서, 반복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임을 말해준다.

후크마(1986)는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정복하라'와 '다스리라'의 두 단어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그는 '정복하라'는 히브리어 카바쉬(kabasch)로서 그 뜻은 '정복하다,' '종속시키다'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는 상세하게 설명하기를, '그것은 인간이 세상의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며, 땅을 경작하며,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채굴하는 것을

54) 칼빈, *기독교강요I* 제5장, 290-296.

55) A. A. Hoekema, *Created in God's Image* (5th ed.) (Wm. B. Eerdmans: Grand Rapids, MI, 1994), 13.

56) G. C. Berkouwer, *Man: The Image of God* (reprinted) (William B. Eerdmans: Grand Rapids, MI, 1984), 69.

57) Ibid., 68; James D Bratt,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William B. Eerdmans: Grand Rapids, MI, 2013), 94.

의미한다고 설명한다.[58] 후크마는 또한 히브리 단어 '*raddah*'는 '다스리다,' '통치하다,' '지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특별히 그는 인간이 동물들을 다스리는 것을 언급하는데, 그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이 자원들을 개발하고 돌보는 것에 대해서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59] 그의 논점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에 사이에 있는 관계들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그 세 요소 각각은 중요하고, 서로 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중에서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60] 후크마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 형상의 완전성'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창세기 1장 28절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변하게 될 우리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처럼 될 것이다'라고 설명한다(고전15:44). 그는 '이 완전함'이 최우선적이고 중요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할 것을 지적한다.[61]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에게 세상을 위탁하신 하나님의 리더십은 창조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축이다.[62]

이것은 성육신을 수단으로 구속질서를 세우며 창조질서를 회복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선교적 리더십과도 관련이 있다. 즉, 선교적 리더십(missional leadership)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매개로 하여 드러나고, 첫 창조의 우주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일관성 있게 한 방향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선교적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서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에 대하여 수행할 수 있는

58) A. A. Hoekema, *Created in God's Image* (5th ed.) (Wm. B. Eerdmans: Grand Rapids: MI, 1994), 79.
59) Ibid.
60) Ibid., 81.
61) 1986, 93.
62) S. M. Hah, 'Biblical Leadership Understanding in Reformed Worldview,' *Faith & Scholarship* vol. 20 (2015:147).

'권한과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선교적 리더십을 드러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육신이야말로 선교적 리더십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을 보여준다. 바꾸어 말하면, 문화명령의 수행 권한을 재위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방법만이 하나님의 선교적 리더십의 사역 속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나가는 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확장에 대한 열망은 해외로의 복음전파로 대변되던 선교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20세기에 경건주의 신앙과 신학의 영향으로 발생하였던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진보진영을 거쳐 보수진영에까지 돌더니, 21세기에는 '선교적'이라는 용어로 칼빈주의적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의하여 강화되고 있다.

리폼드신학교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팀 켈러 목사가 목회하는 리디머교회와 연대하여 도심 속에 사역을 시작하였고, '리더십'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비블리컬신학교는 이미 '선교적'으로 그 슬로건을 바꾸었으며, 내년 2월에는 필라델피아 교외에서 시내 한복판으로 캠퍼스를 옮기는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칼빈주의의 신앙노선에 서 있는 로건(S. Logan)이나 바이즈(P. Buys) 등의 개혁주의연맹을 통한 선교적 담론의 노력은 신학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선교적 리더십에 대한 담론은 이처럼 개혁주의 진영뿐만 아니라, 복음주의를 지향하는 학교들이 앞다투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인물들은 모두 선교학자로서의 신학자들이었다. 모두가 교회의 연합이나 재결합을 위해 헌신하며, 선교지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선교학자들이었다: 하르텐슈타인(K. Hartenstein, 1894~1952), 비스덤(G. F. Vicedom, 1903~1974), 뉴비긴(J. E. L. Newbigin, 1909~1998), 후커다이크(J. C. Hoekendijk, 1912-1975), 보쉬(D. Bosch, 1929~1992). 이들은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있어서 치명상을 안겨다 주었던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선교적 리더십 담론을 열게 하였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들로서 경건주의 신학과 신앙에 영향을 받은 자들로서 모두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선상에서 활동한 자들이다. 경건주의 신학과 신앙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신학과 신앙으로 활동하다가, 21세기에 들어서서 '선교적'이라는 이름으로 신학적, 신앙적 지평을 넓힌 것이다.

선교적 리더십의 두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세례와 제자도를 꼽을 수 있겠지만, 세례 역시 제자도의 과정 중에 일어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교회와 교육 기관은 선교적 리더십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첫째, 회중들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인간구원에 제한하는 복음전파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회복하고 구속하시고 완성하시는 복음전파이어야 할 것이며, 셋째, 선교적 리더십에 대한 담론을 개혁주의 진영의 신칼빈주의들이 더욱 주도하도록 그 담론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신앙 행위가 '선교적 리더십'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고, 신학교육과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기시키고 있다.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마다 선교적 삶을 외치며, 평신도들을 '세상 속에 파송되는 선교사'로 만들기 위한 전략에 부심하고 있다. 이제 고신대학교는 선교적 삶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들을 양성하는 기독교 고등교육의 최선봉으로서, 고신신학의 정체성을 확장 시켜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신경규. "Missio Dei 개념에서 본 두 흐름의 선교신학." 「성경과 신학」 43, 2007:167-214.

정미현. "칼 하르텐슈타인의 신학적 특성-칼 바르트의 신학과 관련하여." 「한국조직신학논총」. 제33집. 한국조직신학회, 서울, 2012:349-386.

Baker, W. H., *In the Image of God: a Biblical View of Humanity*. The Moody Press: Chicago, IL, 1991.

Berkouwer, G. C., 1984, *Man: the Image of God*, Reprinted. William B. Eerdmans: Grand Rapids, MI, 1984.

Callahan, S. H., 'Forming lay missional leaders for congregations and the world' in Craig Van Gelder (ed.), *The Missional Church: Helping Congregations Develop Leadership Capacity*. 2009:120-146.

VanGelder, Craig and Zscheile, Dwight J.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Mapping Trends and Shaping the Conversation*. Baker Academic: Grand Rapids, MI, 2011.

D. Bratt James,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William B. Eerdmans: Grand Rapids, MI, 2013.

DuBose, F. M. *God Who Sends: A Fresh Quest for Biblical Mission*. Broadman Press: Nashville, TN. 1983.

De Graaf, S. G., *Promise and Deliverance* I. (trans.) Hwang, Stephen, Pyongdan Munhwasa: Seoul, 2011.

Garrison, Winfred Ernest. "Reunion of the Church: A Defence of the South India Scheme," *The Christian Century* 66 (27). 1949, 528.

Goldsworthy, G., *Christ-centered biblical theology: hermeneutical foundations and principles*, InterVarsity Press: Downers Grove, IL, 2012.

Guder D. L. (ed.).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Grand Rapids, MI, 1998, 3.

Guder, D. L. *The Incarnation and the Church's Witness*, Wipf and Stock Pub. 2005, 11.

Guder, D. L., 'Missional Theology for a Missionary Church,' *Journal for Preachers*, 22(1), (1998): 3-11.

_____. (ed),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Grand Rapids, MI, 1998.

Haapiainen, Timo-Matti, "The development and outlines of missio Dei in G.F. Vicedom's theology" *Svensk missionstidskrift*, 100. no (1) 2012:45-64.

Hah, S. M., 'Biblical leadership understanding in Reformed worldview,' *Faith & Scholarship*, vol. 20. 2015:137-158.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Studies: Seoul. 2015, 143.

Hamilton, J. M. Jr., *What is Biblical Theology: a Guide to the Bible's Story, Symbolism, and Patterns*, Crossway: Wheaton, IL, 2014.

"Hartenstein, Karl. 1894-1952" *The Christian Century*, 69 no 45 Nov 05 1952, 1303.

Helm, P., *The Providence of God: contours of Christian Theology*, InterVarsity Press: owners Grove, IL, 1994.

Hwang, C. G. (ed.), *What is the Biblical Theology?*,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Seoul, Korea, 1987.

Kaiser, W. C. Jr., *The Promise-plan of God: a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2nd ed.), Zondervan: Grand Rapids, MI, 2008.

Newbigin, J. E. Lesslie, *Unfinished Agenda: An Autobiography*, Grand Rapids:

London: Eerdmans, 1985, 230.

Newbigin, L., *Foolishness to the Greeks: the Gospel and Western Culture*, Wm. B. Eerdmans Publishing Co., Grand Rapids, MI, 1986.

Newbigin, L.,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Wm. B. Eerdmans Publishing Co., Grand Rapids, MI, 1989.

Newbigin, L., *The Open Secret: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Mission* (rev. ed.), Wm. B. Eerdmans Publishing Co., Grand Rapids, MI, 1995,

Roxburgh, A. J. & Boren, M.S., *Introducing the Missionary Church: what it is, why it matters, how to become one*, Baker Books, Grand Rapids: MI, 2009.

Roxburgh, A. J. & Romanuk, F., *The Missionary Leader: Equipping your Church to Reach a Changing World*, Jossey-Bass, San Francisco, CA, 2006.

Schuster, Jurgen. "Karl Hartenstein: Mission with Focus on the End" *Mission Studies*, 19 no 1, 2002:53-81.

Schwarz, Gerold. "The legacy of Karl Hartenstei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8 no 3 Jul 1984:125-131.

Shenk, Wilbert R.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Vol. 24(2), Apr 2000: 59-60, 62-64.

Stewart, T., 'Missional,' *Dictionary of Christianese*, 2013.7.13, viewed 25 October 2014, from: http://www.dictionaryofchristianese.com/missional/#disqus_thread.

Stout, Andrew C. "A PRESBYTERIAN BISHOP: Lesslie Newbigin and Reformed Ecumenism." Pro Ecclesia, 26 no 3 Sum 2017, 278-296.

VanGemeren, Willem A. *The Progress of Redemption: The Story of Salvation From Creation to the New Jerusalem*. Grand Rapids: Zondervan, 1988.

Wedel, Theodore Otto. *The Reunion of the Church*. London: SCM Press,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38 no 149, 1949:100-102.

Wolters, A. M. & Goheen, M. W.,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Wm. B. Eerdmans: Grand Rapids: MI, 2005.

Wright, C. J. H., *The Mission of God: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InterVarsity Press, Downers Grove: IL, 2006.